

서평 - 한국 사람 만들기

모 종 린, 연세대학교

1. 청년 독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 이해가 왜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젊은 층이 한편으로는 민족주의 의식이 강해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뽕'이란 표현이 보여주듯이 민족주의나 정체성 담론에 적대적이거나 무감각합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가 우리 각자에게 왜 실용적으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합니다.

2 가지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첫째, 한국인 정체성은 개인, 도시, 국가의 문화 경쟁력과 탈물질주의 경쟁력에 중요합니다. 문화/탈물질주의 경쟁력은 라이프스타일 시장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본 츠타야 서점 창업자 마스다 무네아키의 '라이프스타일을 팔다' 철학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새로운 브랜드 창조를 위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라이프스타일 기획 능력이 중요해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 대기업들이 기술력과 조직력만으로는 중국과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점입니다. 경쟁국 기업이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전 세계, 특히 선진국 소비자의 취향이 물질적 가치에서 탈물질적 가치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성, 문화, 개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포스트모던 소비자에게 품질과 가격 경쟁력은 선호하는 브랜드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정리하면 라이프스타일이 중요한 이유는 탈물질주의 경제의 주인공이 개인이고, 본질이 개인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기표현과 자아실현, 즉 라이프스타일 욕구가 탈물질주의 경제를 확산시키는 동력입니다. 본인 스스로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람, 즉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자아실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인 정체성의 부재로 도약하지 못하는 산업이 한류 연관 소비재 산업, 즉 한류 라이프스타일 산업입니다. 한류를 라이프스타일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인 정체성을 한국인 생활문화 기반으로 더욱 차별화해야 합니다.

둘째, 함재봉 원장님께서 언론에 기고하신 중국의 유교 공세 칼럼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의 국력은 소프트 파워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중국이 유교를 선점한다면 한국이 유교 전통을 통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할 공간이 크게 좁아집니다.

2. 5 가지 한국인 유형이 현재 한국 사회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전에 20 세기 초에 형성된 다섯 가지 인간형이 그 후 역사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고 융합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의 수렴화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정체성은 세대, 지역, 이념, 국가(헬조선)입니다. 세대간, 지역간, 이념적, 모국 인식에 대한 갈등을 5 개 인간형의 충돌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전쟁의 여파로 형성된 친미, 친일 vs. 친중, 친북 구도, 즉 보수-진보 구도도 결국 '다섯 종류 한국 사람'의 산물입니다.

정체성 통합이 미진하고 부족하다면 그 원인은 5 개 인간형이 모두 디아스포라에 의해 해외에서 완성됐다는 데서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형성돼다 보니 숙의, 조정, 토론, 협상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내내 결함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3. 5 대 한국 사람 모델 중 유독 친일개화파가 철학적으로 빈약해 보입니다. 체계적인 이념적 바탕이 없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친일개화파가 처음에는 일본의 개방과 부국강병 정책을 배우고자 했을지 모르나 시간이 가면서 일본 문화 자체를 흠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문화의 실체와 매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본 문화의 영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한류 착시 현상에 빠져 큰 그림을 못 봐 그렇지 일본 문화의 한국 지배력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국가 체제뿐만이 아닙니다. '헬조선'을 외치는 젊은이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문화는 일본 문화입니다. 패션, 건축, 인테리어, 외식, 소설 등 현대 한국 도시 문화에서 일류(日流)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4. 조선의 주류 주자성리학파가 어떻게 5개 정파로 헤쳐 모이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분파과정을 보이는 도표가 가능할까요?

시작은 주자성리학파의 다양한 계파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류 사회도 당파, 신분(서출 여부), 학파(실학), 천주교관에 따라 나뉘져 있었는데, 이 중 어떤 성향의 그룹이 5개 정파의 주축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친중위정척사파도 소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친중 성향의 지식인을 친명, 친청, 그리고 조선 중화파(황태연의 대한제국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 제일 궁금한 세력이 친청파입니다. 갑신정변 이후 10년 원세개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기간, 원세개에 협력한 대표적인 친청파가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5. 왕도정치 vs. 패도정치

위정척사파가 서구식 근대화를 패도정치와 법가의 부활로 이해했다는 주장이 가장 충격적이고 신선합니다.

법가가 근대식 부국강병을 주장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법가에 법치, 표준화, 국가의 자원 동원 등 부국강병 요소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경사회의 상공업을 산업사회의 공업화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맞는지는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차이가 생산수단의 사유화와 자본 축적과 투자입니다.